

산책

금정회동호둘레길

총거리: 21km

코스: 동대교 → 회동댐 → 오른본동마을 → 명화산황토숲길 →

부여산 → 수원지마을 → 상현마을 → 선봉동 → 진영교 →

아홉산수변길 → 아홉산수변길 입구 → 회동동버스차고지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1964년 상수원보급구역으로 지정된 후 45년만에 개방된 금정회동호둘레길은 오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깊고 깊은 산책길로 각광받고 있다.



땅뫼산황토숲길

황토길과 흙길, 편백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명화산은 오른본동 안쪽의 아름다운 동산이다. 편백나무숲에서 나오는 피톤체로와 맨발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호수와 전망대가 걷는 즐거움을 한껏 더해준다.



갈맷길 7-2코스

13.0km / 5시간 소요

동대교 → 북문 → 범어사 →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 스포츠파크 → 부산률계이트 → 상현마을

성자곡수원지에서 시작되는 7.3km에 들어서면 금정산성을 따라 회동호 상현마을까지 이른다. 금정산성 제2방루가 있는 길에서는 디소 숲이 차나, 남문을 통과한 다음 산성교에서 둑문을 지나 부채비와, 제4방루, 원호봉, 북문에 이르는 능선길은 부산 전체를 조망하는 시원한 길이다.

갈맷길 8-1코스

10.2km / 5시간 소요

상현마을 → 명화산 → 맹장수수사압소(회동지소) → 동대교 → 동천교(석대리)

2009년 부산 갈맷길 축제 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평坦하고 쉬운 길인 동시에 수영강과 회동호의 수면이 제공하는 경관이 뛰어나다. 수영강의 흐름을 따라 동행하는 길로 부산팔경이 한 곳인 동대를 지나면서 도심을 풍물하여 옛 좌수영의 영화가 서려있는 나루공원을 지나 만학교에서 바다와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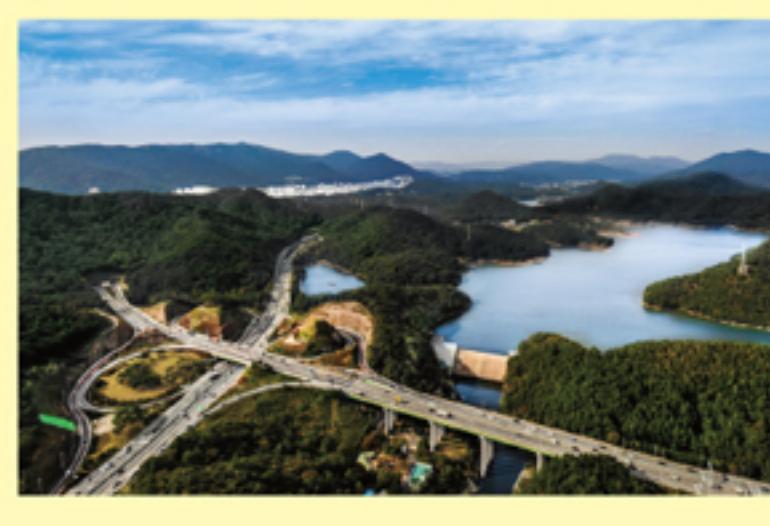
금정 회동호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



역사

회동호 기원

1930년대 후반 한발이 엄습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부산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영강 보조 수원지의 취수를 개시하였으나 곧 바닥났다. 결국, 궁극적인 대책 마련은 미연히 위해 상수도 확장공사를 했고 이것이 바로 통례 회동리 수영강 상류에 조성한 회동호 조성 사업이다. 총 면적 70만평, 저수용량 약 1천만㎥, 1일 평균 급수량 15,000㎥, 1일 1인 평균 급수량 120㎥의 시설 계획을 세워 준공하였다.



하현마을

일제강점기에 회동호를 만들면서 오른대와 5개의 마을 중 등곡, 새내, 깨막골, 아랫마을 총 4개의 마을이 수몰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회동호를 이전해 거기로 바라는 탄원서를 당시에 제출하였으나 제안되었고 회동호 조성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1942년 준공식에서 경남 도지사 오도우 대야가 준공테이프를 끊을 때 수몰민들은 이렇게 한민했다고 한다.

"오늘 테이프를 자르는 저 가위는 우리들 창자를 자르는 가위이고, 회동호에 수몰된 저 물은 우리의 피는물이다."

황산도

황산도(黃山道)는 조선시대 한양과 동래를 잇는 가장 짧은 길인 영남대로의 다섯개 양도 중 1등급 도로였다. 동래를 출발하여 부곡동(상봉정기), 하정마을(소산역), 양산 물금을 지나 밀양으로 이어지는 천년 옛길로 현재 스토리링팅 안내체계 구축 및 하정마을을 소산역터를 활용한 역사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쇠줄배

철마에서 동쪽쪽으로 호수를 기로질러 학교나 레저장을 가기 위해 만든 간이 교통편. 호수의 양쪽으로 쇠줄을 매달아 놓고 이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면서 배를 오고 가게 만들었다.

여우고개

쇠줄배를 타고 내리던 길에서 오른본동 샛길로 이어진 길. 옛날에 이곳에 여우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여 여우고개로 이름붙어졌다.

기찰주막

총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때 참형을 받고 순교한 현호 이정식가족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8명의 유해가 안치된 곳으로 1982년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각종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천주교 성지이다.

업은고개

조선 정조 때 기찰마를 구울산(지금의 운산) 부산에 김호문이라는 선비 부부가 살았다. 한여름 밖에서 자던 중 호랑이가 남편을 덮쳐 부인 김해김씨가 호랑이 고리를 잡고 쫓아갔다. 결국, 남편을 되찾아 업고 고개를 넘어 왔다고 한다. 남편이 이내 사망하자 부인도 따라 목숨을 끊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 일비리를 세웠다.

지금은 긍정구청 앞마당에 이전 설치되어있다.

장전구곡가

구한말 종2품의 추파 오기영(1837~1917년)이 은퇴하고 낙향하여 오른대에서 내를 건너 칠마 장전구곡을 지나 흥언폭포까지 마차를 타고 유람하면서 아홉구석 흐르는 아름다운 구곡의 풍경에 감탄하여 지은 칠안정구의 한시

구곡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곡가는 올곡이야의 고선구곡과 추파 오기영의 장전구곡인데 장전구곡은 부산지방 향토문화의 백미이다.

장전구곡가 <오른대>

오른대 솟아난 누리 정기 모인 곳 두 굽작 어우러진 풍
에나 계나 푸르구나 울바우 거울한 산바리로 해는 거무는데
이련히 둘러오는 홍동물의 피리소리에



오감증진여행

금정 회동호

① 오륜대

오른대 뒤쪽 지금의 오른마을에 '오른五倫'을 잘 실행하는 사람의 삶과 있어 유래되었다. 「동래마을지」에는 '오른대는 동래부의 북쪽 15리에 있는데 시내와 바위가 기이하다. 옛날 다섯명의 노인이 지팡이를 꽂고 놀며 즐긴 곳이기 때문에 미술이름을 오른대라 한.'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주자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숨어지면서 이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다고 한다.

② 상현마을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른진부터 이웃마을에 거주한 현인이 신산이 되었다고 하여 현리라 불렸으며, 현리 위에 있어 상현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하현마을이 삼국시대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 오른대 수원지가 건설되기 전에는 웃간대과 아래각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래각단은 수몰되었고 현재는 웃간대상현마을로 남아 있다.

③ 오륜본동

부여산과 명화산 사이에 자리잡은 회동호의 중앙부 물가에 있는 마을로 고조하고 어유로운 분위기가 넘치는 곳이다. 마을 앞에는 명화산 황토숲길, 편백나무숲, 곤충모형, 녹지대 등 힐링코스가 펼쳐져 있다.

④ 오른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총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때 참형을 받고 순교한 현호 이정식가족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8명의 유해가 안치된 곳으로 1982년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각종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천주교 성지이다.

기찰주막

부산에서 한양가는 길목의 걸문소가 있어 기찰이라 불렸는데, 이곳에 자리하던 주막은 철마장에서 동래정터에 다녀온거나 장작을 팔기 위해 영도까지 물건 백리 길을 다녀온 사람들이 주막 한잔을 하면서 목을 쓰이던 곳이다.(지금의 긍정농협 기찰점 자리)

업은고개

조선 정조 때 기찰마를 구울산(지금의 운산) 부산에 김호문이라는 선비 부부가 살았다. 한여름 밖에서 자던 중 호랑이가 남편을 덮쳐 부인 김해김씨가 호랑이 고리를 잡고 쫓아갔다. 결국, 남편을 되찾아 업고 고개를 넘어 왔다고 한다. 남편이 이내 사망하자 부인도 따라 목숨을 끊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 일비리를 세웠다.

지금은 긍정구청 앞마당에 이전 설치되어 있다.

장전구곡가

구한말 종2품의 추파 오기영(1837~1917년)이 은퇴하고 낙향하여 오른대에서 내를 건너 칠마 장전구곡을 지나 흥언폭포까지 마차를 타고 유람하면서 아홉구석 흐르는 아름다운 구곡의 풍경에 감탄하여 지은 칠안정구의 한시

구곡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곡가는 올곡이야의 고선구곡과 추파 오기영의 장전구곡인데 장전구곡은 부산지방 향토문화의 백미이다.

장전구곡가 <오른대>

오른대 솟아난 누리 정기 모인 곳 두 굽작 어우러진 풍
에나 계나 푸르구나 울바우 거울한 산바리로 해는 거무는데
이련히 둘러오는 홍동물의 피리소리에

오감넷, 역사

금정회동호 사계



음식

상현마을

업소명	주체유	연락처	소재지
88집	향어회 외	051-515-6088	상현로 71
강원집	방어탕 외	051-512-2322	상현로 67번길 13
농원집	양어탕 외	051-517-1923	상현로 70번길 14
백운집	오리오리 외	051-512-5178	상현로 79번길 8-1
상운집	생선탕 외	051-518-0602	상현로 67번길 24
신동집	생선탕 외	051-518-8841	상현로 67번길 33
신미집	생선탕 외	051-518-8869	상현로 67번길 33
술집	오리오리 외	051-514-9338	상현로 64
신선집	오리오리 외	051-518-8868	상현로 79번길 5
한정식	한정식 외	051-516-1724	상현로 61
커피	070-4105-7114		상현로 59
봉이집	오리오리 외	051-515-7413	상현로 59
한우	051-518-1199		상현로 79번길 26
은비나무집	이정숙 외	051-514-7036	상현로 79번길 65
콩강	051-508-4321		상현로 66
포도원집	오리오리 외	051-518-1876	상현로 79번길 13
학승정	오리오리 외	051-515-2907	상현로 79번길 85

